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11월 23일 (제76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02)533-9191 Fax.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032)763-9191 Fax.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실패학(失敗學)

“내 사전에 실패는 없다. 다만 경험했을 뿐이다.” 나는 이 말을 즐겨 사용한다. 실패는 추락이 아니라 추락하지 않는 하나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실패학이 대세다. 사실 성공학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실패학이란 낯설다. 이는 일본 동경대 하타무라 요타로(畑村洋太郎)교수가 처음 주장한 것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여 새로운 성공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실패학이란 성공을 목표로 실패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롯데건설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소장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실패 사례들을 발표하는 이른바 ‘실패 발표회’를 갖는다고 한다. 이 실패 발표회를 통해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니 ‘실패 발표회’는 곧 ‘성공 발표회’인 셈이다.

실패를 맞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실패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진짜 실패는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에디슨의 말이다. “나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9,999번의 실험을 했으나 잘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게 아니고, 다만 전구가 안 되는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다. 그리고 전구가 빛나는 한 번의 이치를 발견하였다.” 이것의 실패학의 진수다. 나도 30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다. 그러나 그것이 감히 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해 다시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눈물 없이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 대업을 논하지 말라고 했다. 더불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자와 대업을 논해서도 안된다. 실패의 경험이 없이 성공가도를 달리는 자는 단 한 번의 실패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실패에 낙담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다.

2014년 마지막 해외집회를 떠나며

한 해를 감사한 마음으로 되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킨다는 점도 그래서 참 절묘한 듯하다.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신앙은 견고하다. 감사할 조건이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말이다.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기뻐한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그러하고, 밋세바로부터 얻은 첫 아들을 잃고 난 뒤 다윗의 감사가 그러하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신앙을 오로지 하나님께

다. 하루하루를 이러한 감동 가운데 눈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님은 추수감사예배를 통하여 당신이 30년 목회 동안 흔들리지 않고 오늘의 성공적인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고백하셨다. 감사하는 자만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에 목사님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오로지 충성된 자세를 잃지 않았고, 그 자세와 습관이 오늘의 성공적인 목회와 삶을 이룬 비결이라 말씀하셨다. 목사

목사님은 늘 그렇게 우리 앞에서 신앙의 굳건한 모델이 되어주신다. 하기야 아무나 “나를 닮길 바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진정 자신과 싸워 이긴 자만이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한다.

엘살바도르(EI Salvador), 스페인어로 ‘구세주’란 뜻을 가진 이 나라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하며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기도 하다. 과테말라(Guatemala) 바로 아래에 위치한 태평양 연안 국가로 12년간의 좌우익 내전을 겪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



추수감사예배 (감사는 견고한 신앙의 마르지 않는 자양분이다)

맞출 수 있도록 해준다.

‘복 있는 자들이 되자’며 출발한 2014년도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오직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는 자다가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생활이 힘겹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감사하자.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눈물로 감사할 때가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그렇게 새 힘을 얻고 내일을 향해 달려갈 뿐이다. 그 끝에는 분명 우리가 그러도 그러던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생각만 해도 좋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을 보을 것이기 때문이

님의 오늘이 있게 한 말씀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열 명이 모이든, 백 명, 천 명이 모이든, 만 명, 십만 명이 모이든 동일한 자세와 열정으로 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앙이기에 가능하리라 믿는다.

또한 남미까지 수만 마일을 수십 시간에 걸쳐 비행기로 오가는 여정이 젊은 사람도 지쳐 나가떨어질 판인데, 노구를 이끌고 다녀야 하는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마는 부르신 자의 그 부름에 응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종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

고, 국토는 파괴해졌다. 군부독재정권 비판에 앞장서며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해 왔던 로메로(Romero) 대주교가 정부군에 의해 암살되고, 이로 인해 촉발된 정부군과 게릴라 간의 내전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뉴스로 접했던 이야기다.

이런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첫발을 내디딘다. 2014년 마지막 해외집회이며 처음 가는 나라이기에 성도여러분의 합심기도가 더욱 절실하다. 그 나라의 영력과 권력과 재력과 지력 있는 자들이 도울 수 있도록, 흑암의 세력들이 훼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린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이초석 목사 엘살바도르 집회 11월 17(월) ~ 28일(금)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7:12~19)

수직적, 수평적 감사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이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직 수직적 관계, 곧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수직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수평적인 관계, 곧 사람들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먼저, 수직적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 한 촌에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열 명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눅17:19)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도 열 명중 한 명꼴, 곧 10%정도만이 감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답 받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목회 30년을 돌아보면 그런 자들이 끝까지 잘 되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매듭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어 꿰매어도 매듭이 안 지어졌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바늘은 통과했지만 꿰매지지 않아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그 일에 온전한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감사한 한 명에게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완벽한 확증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나

‘불구하고’ 감사의 노래가 감동적으로 그려진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3:17~18).

아이가 아파도, 직장이 없어도,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

으 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딤후4:4).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행을 많이 하는 부부가 결혼 10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 뇌에 이상이 있고 몸도 비뚤어진 아이였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10년 동안 아이를 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그제 너희 부부였다.” 이 음성 듣고 부부는 감사하며 아이를 잘 키웠다고 합니다. 그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알면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살후2:13).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지하면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마땅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아들 압살롬을 피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라고 감사했고, 바울 역시 그가 주리고 헐벗고 매 맞으며 세상 만

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으면서도 늘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 또한 교계로부터 제명이 되고, 가

족에게 버림을 당하고도 감사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나온 죄의 구렁

이를 돌아보면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사51:1). 다음은 수평적 감사입니다.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성장촉진제요, 소독제요, 항암제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에 엄청나게 인색합니다. 감사하면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닌데 감사를 엄청 아깝습니다. 감사의 효과, 파급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서빙해주는 분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꼭 합니다. 그러면 깎두기라도 하나 더 줍니다. 상사에게 자주 ‘감사합니다’라고 해보세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상사가 노하우를 전수해줄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가장 안 나오는 상대가 가족과 아랫사람에게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편들은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합니다. 뭐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한

번 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이상으로 감사하다는 말이 상대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아내가 아침밥을 맛있게 해주거들랑 당연한 듯 먹지 말고, “여보, 이렇게 맛있는 아침밥을 해줘서 고맙워. 애들 때문에 늦게 잤을 텐데 힘들지요?” 하면, 아내가 감격, 감동해서 “아녜요. 당신이 힘들지, 나야 낮에 자면 되지요. 당신이 고맙지.” 할 겁니다. 애들에게도 “고맙다. 잘

행복은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

커줘서.” 이러면 나쁜 길로 가라고 떠밀어도 나쁜 길 안 갈 겁니다. “애비가 잠도 안자고 돈 벌어서 다 해주는데 고마운 줄을 몰라.” 이러지 마세요. 감사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감동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니까요.

또한 아랫사람에게 감사한다고 인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직원들이나 제가 기른 제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합니다. 우리 교회로 쓰고 있는 체육관 직원들에게도 항상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격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188번 감사에 대한 말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샘이 마를 때까지 감사를 모르지요. 샘이 마른 후에야 비로소 샘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일할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돌아갈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감사하고, 만나 커피 마실 친구가 있어 감사하고,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사나운 아내가 있어 철학자가 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주자장이 떨어져 걸어 건강에 좋으니 감사하고, 북한 때문에 대한민국이 강해져서 감사하고, 교회가 없어 이곳저곳으로 다니니 새로워서 감사하고....

행복은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이 커집니다. 감사를 습관화하고 생활화 할 때, 우리 삶이 아름답고,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이 함께할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것에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Message for today::

믿음은 예언을 뛰어넘는다

1999년 말 지구가 망한다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서기 2000년을 아주 먼 상상의 미래로만 생각하던 시절에 흥행했던 이야기인지라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지구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앞서 우리나라엔 그보다도 먼저 1992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모 선교회의 주장으로 많은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풍비박산 지경에 이르는 홍역을 치러야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소용돌이는 한국 교회를 장기간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는 악한 마귀의 계책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종말론의 폐해가 한국 교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워낙 심대한 영향을 끼쳤기에 그 후 한국 교회는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조차도 증거하기를 조심스러워하는 처지로 몰리고 말았으니 말이다. 7, 80년대 강력한 성령운동으로 부흥의 불길이 전국을 태우던 역사가들이 그 사건으로 동력을 잃어버린 오늘, 한국 교회는 설상가상 계속되는 세속적인 사건에 휘말리며 세상으로부터도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렸던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홍보할 당시 페이스 북을 통해 올라온 의견들 중에는 ‘교회가 제발 세상의 관심거리가 되는 일은 자중해야 한다’는 소리조차 있었다. ‘그 취지가 아무리 옳아도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 조용히 각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공공장소에서 그런 일을 벌이려드느냐’는 것이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

지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 해도 교회가 할 일을 안 한다거나 할 말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목사님은 이에 대해 단적으로 결론을 주신 적이 있다.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천의 자세는 오직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흥행하는 예언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셨다.

“예언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각 성에서 성령이 증거하는 예언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이는 사도 바울의 믿음에서 비롯된 결단이었다.”

목사님은 “내가 기도한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기도는 실컷해놓고 누가 뭐라 하거나 눈앞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기도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황망해하는 모습을 본다.

우리가 이 땅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다. 최대한 양보해서 이 나라에 우리 예수중심교회가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전쟁의 화마에 내던지시겠는가? 예언이라고 떠도는 이야기들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고, 이 땅에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자.

Henry Han
henry8829@naver.com

뚝대도 삿대도 없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뚝대에 예수나 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뚝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아기도 잘도 잔다 서쪽 나라로.”

오래된 동요다. 나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셨던 외할아버지가 틀어주신 레코드판으로 이 노래를 배웠다. 내가 아는 동요의 대부분은 그렇게 외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것이다.

뚝대와 삿대, 이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풀고 싶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은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다 지시하셨다. 잣나무로 만들고 그 안에 칸을 만들어서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도, 구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뚝대나 키다.

노아가 만든 방주, 노아가 탄 배는 뚝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배였다. 이는 하나

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할 것을 의미한다. 노아는 키를 조절할 필요도 없고, 뚝대를 세워 속력을 낼 필요도 없이 위로 뿜린 창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었다. 그래서 노아는 오히려 평안할 수 있었으리라.

우리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내가 키를 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뚝대를 올려 속력을 내보려고 한다. 그것이 열심히 사는 것인 줄 알고...

누워 하늘만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다. 내 의지 전에, 내 지식에 앞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깨닫는 자가 되자는 것이다. 그러면 그 분이 뚝대도 삿대도 되어 주실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잠16:9).

신영서
jesus7857@gmail.com



::To Be Succeed::

준비할 자가 딸 열매

은퇴한 직장인들의 출구 정도로 여겨졌던 귀농은 이제 ‘농업 비즈니스’라 불릴 만큼 철저한 전략과 준비를 필요로 한다. 오죽하면 ‘귀농의 시작은 공부’라는 말이 생겨났을까. 이는 준비 없이 멋모르고 접근했다가 낭패를 본 많은 귀농인들의 뼈아픈 경험이 남긴 교훈이다. 어디 귀농뿐이겠는가. 각종 시험, 취업, 결혼, 사업 등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일들 모두 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세기에 영국 총리를 두 번이나 지낸 윈스턴 처칠은 탁월한 연설가에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인물로 유명하다. 놀라운 것은 그가 처음부터 말을 잘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어렸을 때는 말더듬이였던 그는 자신의 언어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위인전 등 수많은 서적을 달달 외울 만큼 소리 내어 읽는 훈련을 반복했다. 또 훗날 그가 연설하면서 적재적소에 인용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여러 명언들은 어릴 적 탐독했던 성경과 셰익스피어 작품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니 그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처칠은 완벽한 유머와 연설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사전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거울을 보며 얼굴표정과 입술 모양, 제스처까지 여러 번 연습했고, 조출한 만찬 파티에 초대받아 갈 때조차도 언제 하게 될지 모를 연설을 대비해 골몰하느라 목적지에 도착한 것도 모른 채 차에서 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즉흥적으로 던지는 듯한 유머와 갑자기 서게 되는 연설 자리조차도 사실은 치밀한 사전 준비가 뒷받침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닉슨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처칠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토록 연설과 유머에 뛰어난 이유를 묻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잘하실 수밖에요. 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연설문을 쓰고 외우는 데만 보냈으니까요.” 이처럼 철저한 준비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자리에 곧바로 설 수 있게 하고, 또 완벽에 가까운 결과를 창출하여 세인의 존경을 받게 한다. 우리 목사님도 해외에서 방송 인터뷰를 하게 될 때면 기도하며 의상까지 철저히 준비하신다고 하셨다. 출애굽을 위한 40년간의 모세의 준비, 요셉의 7년간의 흉년대비, 기름을 준비한 다

섯 처녀. 성경에 기록된 준비된 자들이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달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열매를 따기까지는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한낱 조개껍데기가 아름다운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살을 파고드는 아픔을 견뎌야 하고,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온힘을 다해 겹겹질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과 이전에 아픈 준비 과정이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고통 너머 단 열매를 바라볼 수 있어야 끝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 이 말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영원 세계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 육적으로도 건강, 물질, 지식 등에 있어 준비점검에 힘써서 내 삶을 풍성하고 여유 있게 가꾸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라고 꿈꾸며 소망하는 것이 있는가? 그 열매는 기도로, 노력함으로, 절제함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로마에 있는 한 대학교의 신입생이 공부할 돈이 없어 고민하다가 사방에 도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띄웠습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침 한 귀부인이 후원하겠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학생을 만난 귀부인은 많은 돈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등록할거죠?” “네! 약속대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습니다.” “네, 좋은 계획이군요. 그 다음에는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실히 일해서 승진하고 돈도 모아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귀부인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답하던 학생은 결국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늙어 죽겠죠.” 그러자 그 귀부인은 “맞아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도왔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 제 인생 또한 180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일,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싯딤나무의 감사

방송에 나온 한 실화를 소개해볼까 한다. 아파트 1, 2층에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는 젊은 주부들이 있었다. 어느 날 1층집 주부가 2층집 주부에게 일본에 여행 갈 일이 있다며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를 이틀만 돌봐달라고 했다. 자신도 치매에 걸린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터라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사이라 허락했다.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도 1층집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나자 다른 사람이 이사까지 들어왔다. 그날 밤, 1층집 주부에게 전화가 걸려와 하는 말이 “동생, 미안해. 여기 일본인데 우리가 빚이 많아 돈을 벌어야 하는데 달리 방법이 없었어. 이제 직장 잡았으니 딱 1년만 부탁해.”라는 것이다. 2층집 주부는 당장 모시고 가지 않으면 복지시설로 보내겠다고 으박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생각해보니 그 언니도, 이 할머니도 참 불쌍했다. 하여 ‘이것도 내 복이려니’ 하며 그 할머니를 모셨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치매에 걸

린 친정어머니가 이 할머니가 오신 뒤부터 상태가 점점 좋아지신 것이다. 급방 식사를 하시고도 밥 달라고 소리치던 엄마에게 2층집 할머니가 ‘방금 밥 먹었잖아.’ 하면 친정엄마가 “그렇지? 나 먹었지?” 하며 압전해지시는 것이다. 전에는 친정엄마에게 한시도 눈을 땔 수 없었는데 두 분이 오순도순 사이좋게 지내시며 이젠 1층집 할머니가 없으면 안 될 지경이라며 모든 상황에 감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감사는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참으로 가슴 아픈 시대를 살고 있었다.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원수의 칼에 죽었다는 비통함으로 인해 신앙적 고민에 휩싸여 있었다. 더군다나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바벨론이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자 백성들이 두려움에 절망했으니 하박국의 고뇌는 ‘뼈가 속부터 썩어 들어가고 온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떨떨리는(합3:16)’ 정도였다. 이쯤 되면 하

박국의 기도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로 시작해야겠지만 그의 기도는 남달랐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합3:17~18). 이스라엘의 황량한 사막에는 척박하고 힘든 상황을 담담히 이겨내는 나무가 있다. 바로 싯딤나무이다. 이 싯딤나무는 하나님의 법체를 만드는 주재료이기도 하다. 이러한 싯딤나무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감사로 이겨내는 의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체, 즉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담아낼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는 듯하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냐 한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항상 감사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신학자인 터툴리안과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 그리고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의 하나님을 심판을 천천히 돌아가는 뱀들과 같다고 하였습니

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뱀들은 무겁게 돌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잡아 부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의와 불의, 선과 악을 반드시 갈라놓으신다고 자신의 깨달은 바를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도 심판이 있음을 반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며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3:16~18).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는 인생, 생명 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고난이 주는 교훈!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강이 하나 있는데 수심은 그리 깊지 않지만 물살이 무척이나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널 때마다 무거운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건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거친 세상강물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는 고마운 돌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단련되고 만들어지니까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 정근모 박사가 쓴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그에겐 어려서부터 병으로 고생하던 아들이 있었는데 6번의 수술을 했음에도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근모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인생의 고통스런 경험이 때로는 귀한 자산이 된다고, “내 인생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아들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나이에 스물세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던졌습니다. 서른이 되어서는 배우자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그리고 마흔이 되어 자식을 가르치겠다고 매를 들었는데, 내 나이 쉰이 되어 바뀌어야 할 사람이 자신임을 깨닫고 들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누군가의 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을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시119:71).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나도 건강할 수 있다::

학습 무기력증에 빠진 아이

민재는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제법 잘했고 한때는 영재 소리를 들을 만큼 능력을 높이 평가받곤 했다. 그러나 중학교 첫 시험 결과는 민재와 부모님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원하는 성적을 받는데 실패한 것이다. 성적표를 받고 난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지적과 무시는 민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송두리째 뺏아버렸다. 그 뒤로 민재 눈에는 공부가 들어오지 않았고 게임 시간이 늘어나고 잠자는 시간도 늘었으며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중2가 될 때까지 부모님과의 갈등과 사춘기 스트레스로 인한 민재의 방향이 반복되었다.

민재와 같이 학습 무기력증에 빠지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그에 따른

실망감의 표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후 이런 아이는 학습 뿐 아니라 인생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로 커갈 수 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와 대화를 하여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일단 학원부터 바꿔보고 과외 선생님을 바꾸는 등 자신이 직접 해결하고자 한다.

부모와 자녀의 생각과 성향이 서로 다를 경우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지적이나 훈계는, 훈계하는 자와 훈계 받는 아이 모두에게 발전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결국 가장 먼저 부모와 아이 사이의 갈등을 인정하고, 아이가 어느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충분히 들어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심한 경우는 정신과 검사나 상담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아이가 처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이해하

며 관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진정한 대화는 빠른 시간 안에 예전의 성취도에 도달하고 더욱 발전 가능성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끔 돕는 길이 된다.

아이들이 학습과 관련된 속 깊은 이야기를 부모님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성적이 부모님들의 기대보다 못 미치더라도 아이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성공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얻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 학습 외적인 부분을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 보자. 성적 이전에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학습 무기력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약이 아닐까?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아름다운 얼굴이 추천장이라면
아름다운 마음은 신용장이다
마음의 화장을 하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총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23절)**